

다니엘서 - 제133번

예언적 태피스트리 드러내기: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 대한 통찰

Jeff Pippenger

2024-03-13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하며, 그들이 살던 시대보다 세상의 종말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그들의 증언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라는 예언적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그 시기에 모든 이상이 효력을 발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상 중에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기간 동안 지성소를 들여다보도록 허락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는 그것이 2001년 9월 11일 이후였음을 안다. 왜냐하면 그는 3절에서 천사들이 그때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밝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 할 때, 먼저 그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소 안의 지성소를 들여다보도록 허락하셨다. 갑자기 성전의 문과 안쪽 휘장이 들려 올라가거나 걷힌 듯했고, 선지자의 발조차 들일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을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의 앞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와 환상이 나타났고, 그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보좌 주위에는 위대한 왕을 호위하는 경비처럼 스랍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찬양이 깊은 경배의 음조로 울려 퍼지자, 문기둥들이 마치 지진에 흔들리는 듯 떨었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쏟아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 6:1-8 참조.]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뵈 때 경외로 충만하여, 잠시도 자신들을 스스로 우러러보며 감탄하지 않는다. 그들의 찬양은 만군의 여호와께 향한다. 그들이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미래를 내다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승리의 노래가 선율 고운 찬가로 서로 주고받으며 메아리친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의 기뻐하심의 미소 아래에서, 그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다. 그의 형상을 지니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를 예배함에 있어 그들의 가장 높은 염원이 이루어진다. 복음의 일꾼들, 21.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에스겔도 지성소 안을 보도록 허락받았다. 에스겔의 환상은 1장 1절에서 시작되었다.

삼십 년째 되는 해 넷째 달 그 달 다섯째 날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에스겔 1:1.

그의 환상은 여러 장에 걸쳐 계속되며, 8장과 9장에서도 같은 환상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이 밝혀진다. 우리는 그의 세심한 증언을 통해 이를 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다섯째 날에, 내가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을 때, 주 여호와와 그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였다. 내가 보니, 보라 불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의 허리 아래로는 불 같고 허리 위로는 광채의 모양, 곧 호박빛 같은 광채였다. 그가 손의 형상을 내밀어 내 머리털 한 다발을 잡았고,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북쪽을 향한 안쪽 문 어귀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형상이 있는 자리였다. 보라,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 에스겔 8:1-4.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동안 형성되는 두 부류를 밝혀 주는 8장과 9장의 그 환상은, 에스겔이 '평지에서 본' 환상 '대로'였다. 그가 평지에서 본 환상은 3장에서 확인된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평원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일어나 평원으로 나아갔더니, 보라, 내가 그발 강 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서 있었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에스겔 3:22, 23.

에스겔의 '평지'에 관한 환상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영광'과 같았고, 그것은 1장 1절의 환상이었다. 9장의 인침의 환상과 '평지'의 환상은 단지 그발 강의 환상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이사야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었다. 이사야의 환상은 인침의 때에 사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었고,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에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한 사자를 묘사함으로써 이사야보다 더 자세하게 바로 그 일을 밝힌다.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는 반역적인 백성에게 그가 전해야 할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에스겔은 그가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왔을 때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얻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니, 내가 입을 벌리매 그가 내게 그 두루마리를 먹이셨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배로 먹고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이는 네가 이방의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심을 받았음이라.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의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진실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뻔뻔하고 마음이 강퍽함이라.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서 굳세게 하였고,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 굳세게 하였느니라.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낫을 보고 놀라지 말라. 에스겔 3:1-9.

성경에서 이방인은 타국인이며, 타국인은 낯선 말을 한다. 에스겔은 현대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인침의 때에 그 집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며, 지금 지나쳐지고 있다. 14만 4천의 인침의 때에 주어지는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으로, 그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에,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하나님의 이방 양 떼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른다. 이사야가 6장에서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가지고 반역하는 집으로 보내심을 받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대표할 때, 그는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임을 미리 경고받는다. 이사야는 바로 그 특성을 6장에 기록하였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지나쳐지고 있던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그 특성을 적용하시면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셨다.

에스겔은 12장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며, 이로써 12장을 14만 4천을 인치는 때에 분명히 위치시킨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패역한 집 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집이니라. 에스겔 12:1, 2.

에스겔서 12장은 십사만 사천이 인쳐지는 때를 밝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곧 봉함된 책을 읽지 못하는 그 술 취한 자들이 제시하는 가짜 늦은비 기별을 다룬다. 그들의 가짜 늦은비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환상들을 먼 미래로 미루어 두는 데 근거하고 있다.

3절부터 15절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 주도록 지시를 받는다. 바벨론 포로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며, 이어 16절부터 20절에서는 큰 지진의 때에 시작되는 도시들의 파괴에 수반되는 기근을 그가 지적한다. 그 큰 지진의 때는 곧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이다. 그 위기 동안 시골 생활의 유익도 거기에서 제시되고, 이어 21절부터 28절에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현진리로 인정된 본문이 나온다. 그 본문은 The Great Controversy에서 그 책의 밀러주의 역사에 대한 서술 가운데 한마디도 바꾸지 않고 인용되어 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실패한다' 하는 그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속담으로 쓰지 못하게 하리라.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라. '날들이 가까이 왔고, 모든 환상의 성취가 가깝다.' 이스라엘 집 가운데 더 이상 헛된 환상도 아침하는 점술도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패역한 집아, 너희 날에 내가 그 말씀을 하고 그것을 이루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오랜 날 후의 일이고, 그는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모든 말씀이 다시는 지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2:21-28.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에 제시되는 거짓 늦은비 기별은 '날들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모세, 엘리야, 에스겔, 이사야, 요한으로 대표되는 그 사자들이 2020년 7월 18일에 대한 그들의 예언에서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때 라오디게아 재림교인의 기별은 '그가 보는 묵시는 오래 후의 일에 관한 것이며, 그는 먼 때들을 두고 예언한다'는 것이다. 그 역사에서 모든 묵시가 성취될 뿐만 아니라, 사자는 현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의 가짜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그들에게 말하라, '날들이 가까이 왔고, 모든 목사의 성취가 임박하였다.' '내 모든 말은 다시는 지연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그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모든 이상이 성취될 "날들"이 가까웠음을 그 기별이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하며, 그 "날들"은 곧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날들이다. 이 구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인침의 기간을 뜻하는 그 "날들"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헛된 이상"과 그들의 "아침하는 점술"과 그들의 가짜 "속담"을 그치게 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날들에 그것을 그치게 하시므로,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이전에 그들의 가짜 늦은 비 기별을 그치게 하신다. 그분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 때 기호로 세우기 위해 택하신 자들을 들어 높이시면서, 참된 늦은 비 기별을 확증하심으로써 그것을 그치게 하신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지진" 이전에 인침을 받는다.

그분이 가짜 늦은 비 기별의 헛된 속담을 그치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격화되어 임하는 것이다. 그 심판은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압도적인 놀라움으로 닥치지만, 빛의 자녀들이 예언해 오던 바로 그 메시지의 일부이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역사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 심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해서 제시되어 있으며,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인침의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환상들을 포함한 모든 환상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시점이니, 그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 글들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처음 세 장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2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며, 그러므로 인치는 시기의 둘째 시험을 보여 주는 예증입니다. 첫째 시험은 1장이었고, 그것은 사람이 하늘의 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바벨론의 양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음식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2장은 왕국들을 의미하는 짐승의 형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 감추어진 진리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 때에 있을 짐승의 형상 시험을 나타내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추어진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십사만 사천인의 역사 속에서 봉인이 풀려 드러나는 감추어진 진리이자, 그 형상에 나타난 성경 예언의 여러 왕국들에 관한 감추어진 진리이다.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또한 바벨론의 음식을 먹던 갈대아 지혜자들에게도 생사를 가르는 시험이었다.

엘렌 화이트는 짐승의 우상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형성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시험으로서, 그 시험에 의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의 감추어진 꿈은 그 시험을 상징한다. 모든 환상의 성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 이 날들에 드러난 그 우상에 관한 감추어진 진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께서 성경 예언의 나라들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 언급에서 여덟째 짐승이 일곱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셨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덟째 짐승, 곧 일곱에 속한 자는 세상의 권좌로 복귀한 교황권이며, 드러난 더 깊은 숨은 비밀은 미국이 이 나라에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 때 그 역시 일곱에 속한 여덟째의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1989년 종말의 때 이후의 여섯째

대통령, 곧 용의 모든 영역을 뒤흔든 부유한 대통령은 2020년에 진보적이고 워크 성향의 자유주의 글로벌리스트들의 손에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무신론적 짐승이 거리에서 공화당의 뿔을 암살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셋째 천사의 운동은 2020년 7월 18일, 요한계시록 11장의 무신론적 짐승의 손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 운동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3년에 그 운동은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세워졌다. 두 뿔 모두가 2020년에 죽임을 당했고, 상징적인 삼일 반 후에 두 뿔 모두가 일어선다. 짐승의 정치적 우상의 형성은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때에 그들이 형상을 만드는 짐승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짐승이다. 미국에서 그 우상 짐승이 형성될 때 그것은 로마의 여덟째 짐승의 바로 그 예언적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참된 개신교의 뿔에 짐승의 형상 시험이 성취될 때, 땅의 짐승의 두 뿔 모두에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된 예언적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원히 인침받을 것이다. 헛되고 아침하는 환상을 받아들인 어리석은 처녀들은 영원토록 짐승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의 놀란 눈앞에 세상 통치자들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드러내는 상징들이 나타났다. 서로 교차하는 바퀴들이 네 생물에 의해 움직였다. 이 모든 것들 위 높이에는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앉아 있는 이는 마치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었다.' 에스겔 1:26, RSV.

그 바퀴들은 그렇게도 복잡해서 언뜻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완전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다. 천상의 존재들이 그 바퀴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인간사의 복잡한 전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열국의 다툼과 소요 한가운데서도 케루빔 위에 좌정하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의 일을 이끄신다. 모든 민족과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자리를 정해 두셨다. 오늘 사람들과 민족들은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준다. 지금까지 예언이 미리 말한 모든 것은 역사의 장에 그려져 왔으며,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정해진 순서대로 성취될 것이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중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이 요동하고 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셨다: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6, 7.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곧 크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며, 세상이 실로 엄청난 위기의 직전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이미 전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며, 그 다가오는 소리는 땅을 떨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황량하게 하시며, 그 지면을 비틀어 그 주민들을 흠으시리라.'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규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주민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다.' 이사야 24:1, 5, 6, RSV.

'오호라! 그날은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나니, 이는 곧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30:7.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네게 닥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시편 91:9, 10.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가 가장 큰 위험의 때에 처할지라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분의 나라의 원칙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될 것이다. Historical Sketches 277-279.

'인간 사건들의 복잡한 전개'는 인치는 때에 에스겔이 본 지성소의 환상에서 바퀴가 바퀴와 교차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환상의 성취이며, 인치는 때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에 이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막 직면하려는' '엄청난 위기'를 가리키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땅을 진동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게 한다.' 땅의 흔들림과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둘 다는 일곱째이자 마지막 나팔의 소리, 곧 셋째 화를 상징한다.

셋째 화의 이슬람이 열방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아서, 점점 커지고 격화되는 위기를 나타낸다. 그 격화되는 위기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고, 2023년 10월 7일에는 다음 극심한 진통이 닥쳤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므로 다음 진통이 아주 곧 올 것이고 그것은 더욱 파괴적일 것이다. 당신은 아직도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선지자에게 '바퀴 안에 바퀴'와 그것들과 연결된 생물들의 모습은 모두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바퀴들 가운데서 무한한 지혜의 손이 보이며, 그 사역의 결과는 완전한 질서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는 모든 바퀴는 다른 모든 바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인다. 나는 인간의 도구들이 지나친 권세를 추구하고 스스로 그 일을 통제하려 들기 쉽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능하신 일꾼이신 주 하나님을 그들의 방법과 계획에서 지나치게 배제하고, 그 일의 진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 누구든 한순간도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이'께 속한 것들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인간 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의무의 자리에서 이 때를 위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교사이심을 알아야 한다." 증언, 9권, 259쪽.